

SEARCH

검색

- 커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3년 2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을 걷는 즐거움 II

도시에서 누리는 녹색길



Column

나들길에서.....



Interview

인천둘레길 추진단 이경호 단장과와의 만남



IDI 소식



인발연, '2011 한국정치
세계학술대회(인천세
션)'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
배)은 인천 송도에서 개
최하는 '2011년 한국
정...

Zoom 人



인천시립박물관 초대관
장 석남 이경성
인천시립박물관은 우리
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
이다. 이 공간을 처음으
로 조...

Zoom INcheon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한국문화박물
관
독서삼매경. 올망졸망
한 아이들이 벽에 기
대어 있었지요. 건너
편에는 주부...

도시동향



도시속 둘레길을 걷다
_도교도 세타가야구
도교도의 23개 자치구
중 하나인 세타가야구
는 일본인들이 가장
살고 싶...

IDI 연구



계양산림휴양공원 조
성 방향에 관한 연구
골프장 조성으로 인천
시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어 왔던 계양산
북사면에 ...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8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나들길에서.....

김은미(강화나들길 도보자 겸터 '물길바람길' 대표)



나들길에서.....

김 은 미

강화나들길 도보자 겸터 '물길바람길' 대표
(강화나들길 코스 탐사·개발)

강

비고차, 해구군, 혈구군, 강주, 심도..... 강화도의 옛 이름들 만으로도 강화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걸어왔음을 알 수 있다.

단군이 참성단에 제를 올리던 시절부터 청동기 시대, 삼국 시대,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역사 속에 자리하고 있다.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 바다로 향해 흐르는 곳에 자리한 지정학적 조건이 교역을 하기 위해서나 전쟁을 치루기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 배였을 시절, 개경이나 한양으로 가기 위한 목구멍 같은 곳이어서 인후지(咽喉之地)라 했을 것이다.

고려가 몽고를 피하고 끝까지 대항하기 위해 강화로 천도를 해서 왕실의 안위를 보전할 수 있었던 것도 조세와 물자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강화로 흐르는 물줄기 덕분이었다.

조선에 이르기까지 강화는 북벌의 교두보로, 보장지처(保藏之處)로 중히 여겨졌고 53개의 돈대가 축성되었다.

1232년 고종이 승천포에 배를 대고 강화로 들어와 1270년 개경으로 환도하기까지 39년간 고려의 수도였던 터라 강화산성을 비롯한 고려의 유적들이 많고 유물은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

이어지는 조선시대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루어진 곳이니 역사가 숨쉬는 섬, 지붕없는 노천 박물관이라는 말을 들을 만 하다.

그러다 보니 '강화나들길'에는 이런저런 이야기거리들이 많고 볼거리들이 많다.

서울, 인천 등 대도시가 인접해있어 심정적인 접근성도 좋다.

'제주올레'나 '지리산둘레길'처럼 미리 갖춰진 브랜드 이미지가 없어도 '강화나들길'이 빨리 알려지고 찾는 이들이 많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105년전 강화군 불은면 두두미 마을에 살았던 화남 고재형 선생의 '심도 기행'이라는 인문학적 토양이 더해져 '강화나들길'은 의미있는 트레일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암울했던 1906년 환갑을 기념해 봄바람 부는 불은면 두두미 마을에서 출발해 강화를 구석구석 유람하고 강화의 풍광과 강화가 낳은 의인, 지사들 그리고 그 시절의 풍속들을 읊은 7언절구 시조 265수가 담겨진 '심도 기행'은 아직까지는 유일한 기행 시산문집이다.

1. 두두미동(斗頭尾洞)

斗頭我步帶春風 봄바람 맞으며 두두미를 걷노라니,
一府山川兩眼中 은마울의 산과 내가 한 눈에 들어오네.
明月錄楊諸具榻 밝은 달 푸른 버들 여러 구씨 탁상에서,
滿杯麴味使人雄 잔 가득한 술맛이 힘을 내게 하는구나.

나들길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족과 혹은 좋은 이들과 함께 소풍하듯 즐겁게 설레이며 나들이 올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

걷기는 산과 꽃들과 새들과 바람과 구름과 그리고 길 위의 돌맹이들처럼 사람도 자연 속에서 똑같은 그 중의 하나임을 몸으로 느끼게 한다.

그러면 인간이 가진 오만은 내려놓고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요, 그렇게 (나)를 낮추고 (들)어서는 길이라는데 나들길의 의미가 있다.

국민소득이 이만불에 육박하면서 일기 시작한 도보 여행의 러시 속에서 각 지역마다 걷기 좋은 길들이 찾아지고, 코스화 되어 여행객들을 부르고 있다. '강화나들길'도 예외가 아니어서 해가 거듭될 수록 더

많은 도보 여행자들이 나들길에 들고 있다.

온라인상의 걷기 동호회가 100여개가 훨씬 넘을 정도로 걷기는 이제 트렌드화 되었다.

트레일 코스를 새로운 여행 문화 상품으로, 관광 자원으로 주목하는 지자체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각 지자체 마다 더 많은 도보 여행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코스를 만들고,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데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

화장실이나 급수 시설, 쉬어갈 수 있는 그늘과 쉼터 같은 편의 시설 확충은 걷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지만,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치중 하다 보니 더 큰 주차장을 만들고, 길을 넓히고, 산마다 강가나 갯벌에 데크가 깔리고 계단이 설치되고 있다.

골목길마다 아스콘을 덮고 농로까지 다 포장된 마당에 산 기슭에서나 흙을 밟으며 걸을 수 있었는데 그도 이젠 난감해지고 있다. 과연 토목 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걸으며 풍경이 되고, 자연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걷기의 덕목이 쏙 빠져버린,

걸려진 액자처럼 풍경을 감상하면서 알려진 트레일 코스를 완주하는 데 의미를 두는 도보여행의 유행이 과연 얼마나 갈까?

사람이건 물자건 모두 차로 이동해야 하는 자동차의 시대에 걷기 여행자들을 위해 포장을 걷어내자는 것이 아니다.

편의성과 빠른 성과에 대한 욕심을 조금 덜 내자는 것이고 느린 삶-slow life이 주는 자유로움과 여유가 주는 행복감에 눈 돌려 보자는 것이다.

남보다 먼저 알고, 먼저 움직이고, 먼저 성취하고자 하는 속도와 경쟁 속에서 벗어나 경제성이라는 자로 재단 되어진 시간의 틀을 깨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속도를 되찾는다면 황폐해져 가는 오늘날의 개인과 사회 그리고 환경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길은 '어머니 대지'의 한 모습이다.

모두를 품어주는 힘이며, 사랑이다.

이 시대의 소통과 관계의 공간으로서 내어지는 길들에 대한 바램을 '어머니 대지'의 또 한 모습인 나들길 위에 얹는다.

갑비고차, 해구군, 혈구군, 강주, 심도..... 강화도의 옛 이름들 만으로도 강화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걸어왔음을 알 수 있다. 단군이 창성단에 제를 올리던 시절부터 청동기 시대, 삼국 시대,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역사 속에 자리하고 있다.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 바다로 향해 흐르는 곳에 자리한 지정학적 조건이 교역을 하기 위해서나 전쟁을 치루기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 배였을 시절, 개경이나 한양으로 가기 위한 목구멍 같은 곳이어서 인후지지(咽喉之地)라 했을 것이다.

“이야기가 있고, 문화 공간 어우러진 둘레길 만들고파”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8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이야기가 있고, 문화 공간 어우러진 둘레길 만들고파”

인천시와 연결된 녹지축 주변을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을 테마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 둘레길로 조성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애쓰고 있는 인천둘레길 추진단 이경호 단장을 만나 인천 녹지축에 대한 이야기와 인천 둘레길의 장점 및 추천코스, 그리고 앞으로의 조성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Q 몸담고 계신 단체(인천둘레길 추진단)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둘레길을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개발해 나가면서 시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매달 둘째, 넷째주에 둘레길 걷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도심속에서 숨쉬는 숲속을 체험할 수 있도록 생태도시, 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인천둘레길 추진단 이경호 단장

Q 개인적으로 녹지축건기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등산이나 걷는 것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 추진이 모티브가 되어 녹지축건기 운동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녹지축 폭이 넓지도 않은 20여km에 교량을 17개, 터널을 8개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축의 존재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 문제로 포럼에서 세미나도 하면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발상이 환경에 대해 포지티브 운동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 올레길과 마찬가지로, 녹지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많이 걷다 보면 유명한 걷기 코스가 될 것은 당연한 이치니까 실천운동을 하자는 생각으로 녹지축건기운동본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포지티브 운동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녹지축을 시민들에게 알리자는 것이 목표이고, 인천 녹지축이 한남정맥의 중요한 부분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진주, 부산, 마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정맥과 대간 걷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아직 녹지축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한달에 두 번, 둘째, 넷째 토요일에 걷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인천의제를 중심으로 둘레길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보자 결의를 했습니다. 녹지축둘레길 추진단의 걷기로 출발했는데 녹지축을 벗어난 범위도 많고, 해안둘레길, 섬둘레길도 많아서 그 이름을 인천둘레길 추진단으로 바꾸고 단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Q 인천의 녹지축 중에서 좋은 곳은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천에 한 20년 정도 살았는데, 요새 둘레길을 걸으면서 인천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나 새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인천대공원을 출발해서 장수천 따라 소래 생태습지포구까지의 6코스가 가장 추천할만한 곳입니다. 생태공원도 돌아보고, 소래포구에서 회 한접시 먹기에도 좋은 코스라고 할 수 있죠. 아직까지도 전통재시장의 운치가 남아있어서 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산 한바퀴를 도는 1코스는 서울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복사면 쪽으로 가면 생태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고, 울창한 산림을 자랑합니다.

만월산터널쪽으로 올라가는 5코스는 도룡뇽을 볼 수 있는 만사면의 마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천 주변 산지는 대부분 건천인데 그곳은 웬만큼 가물어도 물이 많고 작은 폭포도 있어서 시원하고 좋습니다.

Q 반대로 인천의 녹지축 중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필요한 곳은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코스와 7코스가 걷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징땡이 고개부터 인천발전연구원 뒤로 해서 인천 경인고속도로 빠지는 2코스가 난지 중에 하나인데 한국은행연수원에서 담벼락을 쳐놓아서, 만일 양보가 되면 조금 수월할텐데 그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소래포구에서 시작해서 승기천까지의 7코스는 해안선 따라서 계속 걷게 돼서 지루함을 줄 수 있습니다.

Q 둘레길 조성에는 기존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람이 다니면서 좋은 길을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다니기에 좋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관광도 트렌드가 있듯이 예전에는 보기 위주의 관광이 많았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등 귀한 유산들이지만 외국인에게는 그닥 인상적일 것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보기 위주의 관광은 메리트가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것이 3-4년전부터 느낌의 관광, 느끼는 관광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제주 올레길입니다. 올레길을 가보니 지금까지의 제주 관광은 헛관광이었구나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을 걸어서 30분을 간다 해도 빨리 지나갈 때 못보고 지나칠 수 있는 길거리의 화산석, 야생화 등을 직접 보고 만져 볼 수 있고, 자동차로 이동 중에 멀리 보이는 해녀들을 보고 신기해했다면, 걸어서 하는 관광은 직접 대화도 해보고, 해녀들이 갓 잡은 소라를 먹어보라고 건네는 인정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느끼는 둘레길 걷기의 묘미 중 하나일 것입니다.

Q 최근 지자체마다 같은 둘레길을 반복하여 양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경계해야 할까요?

제주 올레가 유명해지고 매킴을 타면서부터 지자체장들이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둘레길에 대한 욕심이 생겼는데, 대부분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기획하게 되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고 걸보기 카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동기구 같은 시설물 설치하고, 포장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포장이나 계단을 만들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흙길을 걷기 힘든 시민들의 욕구는 비포장길을 걷길 원하는데 불고인다고 콘크리트로 덮어버리고, 황토 페인트 칠해서 황토길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둘레길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앞으로 인천 둘레길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 계획이신가요?

인천 둘레길이 갖고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공식화된 운동은 아니지만 멀리 갈 필요없이 가까운데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착한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 올레길에 익숙한 사람은 인천 둘레길이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문화컨텐츠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둘레길을 걸으면서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조형미술을 설치하고, 전통 주막을 복원시켜 보자는 것 등인데, 사실상 징땡이 고개에도 옛날 주막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는 즐거움처럼 중요한 것이 먹는 즐거움이기도 하니까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경인운하 이주단지 포장마차 사람들과도 얘기해보는 등 다각도로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색깔을 낼 수 있는 도시 숲길을 조성하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재미있는 둘레길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 대담 : 손 동 필(도시기반연구부 책임연구원)

■ 기록 : 장 순 지(사무처 경영관리팀)

인천시와 연결된 녹지축 주변을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을 테마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 둘레길로 조성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애쓰고 있는 인천둘레길 추진단 이경호 단장을 만나 인천 녹지축에 대한 이야기와 인천 둘레길의 장점 및 추천코스, 그리고 앞으로의 조성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8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발연, '201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인천세션)' 개최

■ 인발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학술 및 연구교류협력 협약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7월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학술연구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간의 공동 학술연구 추진 및 학술행사 개최 등을 공동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주요 국가정책적인 의사결정에 인천의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시키고자 하는 국책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었다. 한편 이번 협약 체결은 서면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 지역공동체 및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례조사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8월 12일, 서원마을(서울 강동구 암사동)과 미루마을(충북 괴산군 칠성면)로 지역공동체 및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례조사를 다녀왔다.

이번 사례 조사는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부진한 가운데,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와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한 기존 커뮤니티 유지 및 주민주도형 노후주거지 정비기법이 주목받고 있는바, 주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서울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지역인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득확보프로그램 및 교육/문화/의료/봉사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괴산군 칠성면 미루마을을 대상으로 현장답사와 간담회를 통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자 시행된 것.

김민배 원장을 비롯한 관련 연구자 14명이 참여한 이번 사례 조사를 통해 다양하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기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인천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인발연 <201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인천세션)>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2011년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기간 중, 지난 24일 오후 2시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06호에서 인천광역시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별도의 '인천세션'을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동북아의 미래를 위한 인천광역시의 역할을 대내·외적 차원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회장 박찬욱)와 '동북아의 미래와 인천광역시의 역할'을 주제로 2011년 공동연구사업(연구책임 : 이용식·이호철)

을 추진하였다. 그 성과를 토대로 마련하게 된 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의 대외적인 측면과 내부적인 측면에서, 제1세션 '동북아 평화를 위한 인천광역시의 역할'과 제2세션 '융합·소통의 거버넌스와 인천광역시' 등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인천광역시가 대외적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대내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지방정부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에 대한 정책방안 모색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2011년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기간 중, 지난 24일 오후 2시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06호에서 인천광역시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별도의 「인천세션」을 개최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8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시립박물관 초대관장 석남 이경성

도시기반연구부 손동필 책임연구원

인천시립박물관 초대관장 석남

“1946년 4월 1일, 인천시립박물관이 중구 송학동 1가 1번지에서 개관을 합니다. 인천시립박물관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입니다. 인천은 우리나라 현대문물의 원조집산지라고 할 만하죠. 석남 이경성(1919-2009)이 초대 박물관장입니다. 이 분은 한국의 1세대 미술평론가이자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역임한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분이 지닌 사람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 [작은전시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는 박물관에서 가장 적은 공간이지만 가장 큰 사랑이 머물러 있다는 느낌입니다. 사랑, 사람, 가족을 주제로 어린 외손녀와 함께 만든 그림들이 작은 벽면에 촘촘히 걸려있네요.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찾고자 하는 석남은 세상을 떠났으나 그가 남긴 뜻은 우리들이 가야할 길을 따뜻한 정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듯합니다.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니 손녀가 벌써 대학생이 되었다고...”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프리에 2월호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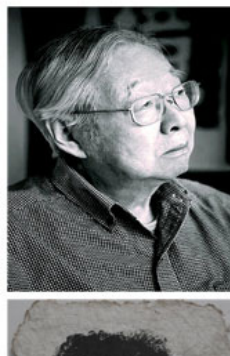
인천시립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이다. 이 공간을 처음으로 조성하시고 관리하신 분이 바로 석남 이경성 선생입니다. 1919년 2월 17일 인천에서 태어나 1937년 와세다 대학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해방직후부터 대한민국 미술을 위해 헌신하셨다. 특히 해방 뒤 일본인 소유 문화재 반출을 저지하기 위해 백방팔방으로 뛰며 인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주도했고, 1948년에는 관장으로 취임하셨다. 한국전쟁 후에는 홍익대, 이화여대 교수로,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워커힐미술관의 관장님으로 계셨다가 일본 소계초미술관의 명예관장으로 재직하셨다. 또한 35세 미만의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석남미술상을 매년 수여하셨고, 그 분이 돌아가신 지금에도 매년 수여되고 있다.



“1980년 2월17일 회갑을 기념해 내 호를 따서 만들어진 「석남 미술상」은 내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애정을 쏟는 대상이다. 회갑기념 논문 「한국현대미술의 형성과 비평」을 출간해 생긴 이익금과 전시회 이익금을 모아 매년 신인작가와 평론가, 큐레이터에게 전시회를 열어주고 학비를 보조한다. 화가 김장성 신산옥 지석철 장화진 황주리 조성무 김진영 등이 수상했고 많은 평론가와 큐레이터들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미술계에서 새로운 신인들이 커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내가 한참 일했던 시절 뿌린 씨들이 커다란 나무로 커가는 것을 보는 것 같아 뿌듯하기만 하다...”

-경향신문 1999년 5월 14일 30면 <나의 젊음 나의 사랑> 중에서

위에서 보듯이 그는 한국의 미술에 대해 애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평생 청빈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집 한칸 마련하지 못했으며,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말년에는 변변한 거처조차 없이 보냈다. 서울 종로구 한국병원 노인병동에 임시 기거해 왔으나, 운명난에 시달리는 병원 측이 최근병실을 비워달라고 통보해와 쫓겨나기도 했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딸과 함께 생활해오다가 2009년 11월 26일 미국 뉴저지의 한 병원에서 별세하셨다.



석남 이경성은 우리나라 미술비평 및 미술행정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셨다. 저술 또한 많았는데, 근대미술을 서구 사조 이식론과 자주적 근대화역량론의 두 축으로 풀어나 **<한국미술사>**(1962), **<한국근대미술연구>**(1975), **<한국근대회화>**(1980) 등의 저서는 아직도 명저로 꼽힌다.

또한 수필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셨는데, 특히 그의 말년에 쓴 '망각의 화원'이라는 책에서 곱게 늙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언한다. 평생 청빈하게 사신 로맨티스트의 품모는 시끄러운 미술계나 물질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던진다.

이 경 성



"자랑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이제는 내 차례가
아침을 인정하고 욕심을 버리고 몸은 비록 늙었어도
정신은 늘 먼 데를 바라보는 낭만을 가질 것"

-'망각의 확장' 중에서 중에서



인천시립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이다. 이 공간을 처음으로 조성하시고
관리하신 분이 바로 석남 이경성 선생님이다. 1919년 2월 17일 인천에서 태어나 1937
년 와세다 대학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해방직후부터 대한민국 미
술을 위해 헌신하셨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8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_한국만화박물관



독 서상매경.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벽에 기대어 있었지요. 건너편에는 주부와 청장년들, 옆 방에는 어린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상에 둘러앉아 있었지요. 거기에 한여름의 나른함이나 늘어짐은 없었지요. 한국만화박물관. 부평과 붙어 있는 부천 원미구. 한국만화박물관은 무한상상이 펼쳐지는 커다란 공간입니다. 만화도서관의 일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박물관하면 땅에서 파낸 유물을 어두운 조명에서 바라보며 옛날 고릿적을 떠올리는 장소라는 고정관념에 갇혀있었죠. 오래되고, 진중하고, 귀하고 비싼 것들. 박물관에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 만화같이 가벼운 것이 박물관과 어울리기에 격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만도 하네요. 하지만, 이건 아실 필요가 있지요. 박물관은 **흥미롭거나 의미가 있는 물품을 보관 전시하여 사람들에게 영감, 학습, 즐거움을 주는 장소**라고 합니다.

만화박물관은 그림보다 만화에 대한 지식과 사고방식을 관람자에게 더욱 알차고 무게 있게 가져다주는 듯합니다. 한국 만화의 내공. 한국에 최초의 만화가 등장한 것이 1909년입니다. 언론을 중심으로 하는 시사풍자 만화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달에 한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공포의 외인구단, 풀하우스, 궁 등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들. 할리우드에 영화가 된 **프리스트**. 세계아이들의 **뽀통령**, **뽀로로**는 어떨고요.

박물관은 모두 4층입니다. 관람은 3층과 4층을 먼저 보고 2층 도서관을 거쳐 1층에서 끝내는 순서를 권장하고 있지요. 3층은 국내외 작가에 대한 기획전시입니다. 8월에는 김종래 작가전이 열리고 있었죠. 고 김종래 작가는 **엄마 찾아 삼만리**로 널리 이름을 알렸지요. 1958년 처음 단행본으로 나와 1964년까지 10판에 걸쳐 재출간된 베스트셀러 였는데, 만화 단행본으로선 최초라고 합니다. 3층 한편에는 상설전시실이요. 한국 만화의 역사와 관련 전시물을 볼 수 있죠. 난로를 중심으로 만화책들이 꽂혀있고 딱딱한 긴 나무 의자가 쪽 줄을 지어 있는 만화가게가 있습니다. 또한 3차원 영상과 진동, 바람이 함께하는 4차원 영상관에서는 메시 경각 영화를 상영합니다.



4층은 체험관으로 만화가가 되어 직접 캐릭터를 그려볼 수 있죠. 만화가들의 작품 세계를 다룬 다크메타릭스 보스 이그 시이 자가드이 자프로 마빈스 트랜저지드 마나 스 이시디스 5층은

거꾸로읽기를 할 수 있고, 만화책읽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독방단지와 만날 수 있습니다. 2층은 만화도서관과 체험실이죠. 아동열람실과 일반열람실에는 넓은 서가 가득히 각종 만화가 빼곡합니다. 희귀자료는 따로 신청할 수도 있지요. DVD 애니메이션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체험실에서는 캐릭터 배지 만들기, 거울잔상애니(프락시노코프), 닥종이 인형만들기를 할 수 있죠.



1층은 휴게공간으로 기념품 가게, 카페도 있지요. 영화관에서는 **마당을 나온 암탉**이 상영 중이었 습니다. 5천 원이면 극석에서 캐리캐처를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박물관 나서면 바로 앞에 한옥단지가 있어 문화체험을 할 수도 있네요. 만화박물관. 이런 게 하나쯤 우리 동네에 있으면 좋겠다는 즐거운 상상을 합니다.



글 조승현(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 사진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크기도 王, 맛도 王, 서비스도 王, 손님이 王이 되는 조개구이집

조개구이 맛집으로 입소문이 자자하다는 삼산동 **대왕대포**를 찾았다. 대기표 대신 대기주걱을 들고 기다리는 것이 기본이라기에 이른 저녁에 방문했는데도 손님이 꽤 많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눈을 사로잡는 발칙한 문구들, [안주할 세우는 당신...성공하실 겁니다], [지나친 음주는...감사합니다].. 자연스레 안주와 음주를 부추긴다.



주요 메뉴는 아무데도 소개구이와 조개찜. 이는 저녁이라 조개찜은 너무 거창할 것 같아서, 제대로 한 종류에 집중하고자 가리비찜(28,000원)을 주문했다. 양푼같은 그릇에 모락모락 갓 찐 가리비찜이 위용을 드러낸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고, 푸짐한 양에 입이 벌어진다. 가리비찜과 함께 올려진 콩나물과 대파가 모양새를 더 다부지게 만들어준다. 가리비가 싱싱, 탱탱해서 껍질과의 분리가 쉽고, 그 맛은 또 쫄깃하고 담백하기 그지없다. 조개구이는 조개가 마를 수 있어서 자칫 굵는 정도가 지나치면 질기거나 뻑뻑하기 쉬운데, 조개찜은 수분을 머금어서인지 부드러우면서 조개 그대로의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다음으로 주문한 소라찜(20,000원)은 적당한 크기에 젓가락으로 쏘옥 빼 먹으면 첫 맛은 구수하고 끝맛은 구운 밥 같은 맛이 난다. 때때거나 버릴 거 없이 다 먹어야 소라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대미를 장식한 벤토(1,000원)와 조개왕라면(14,000원). 벤토는 말 그대로 옛날 도시락통에 보리밥과 멸치볶음, 무말랭이 그리고 분홍 소세지 하나가 곱게 올려져 있다.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재미가 있다. 조개왕라면은 처음에 메뉴판만 보고, 라면치고 가격이 비싼 게 아닌가 싶었는데, 등장하는 순간 그런 마음은 사라졌다. 가히 해물탕을 방불케 하는 맛과 모양새다. 향긋한 미나리와 콩나물, 파, 호박, 버섯을 비롯한 각종 야채와 조개들, 그리고 낙지까지...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맛과 라면이 어우러져 묘한 궁합을 자랑한다. 흡사 조개왕라면이 아니라 해물탕에 라면 사리를 추가한 기분이었을까? 게다가 조개왕라면에 공기밥 하나 추가한다면 성인 서너명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다. 또 한가지, 독특한 것은 조갯살해물파전이나 김치전 포장을 주문하면, 크기에 먼저 놀란다. 그리고, 마치 배달 피자 케이스 같이 큰 상자에 넣어주는 것이 인상적이다. 코리안 피자인 셈이니 그렇게 창안한 것 같아서 재미있고, 폼도 난다. 이밖에도 철판볶음요리부터 탕류, 구이류, 회류, 간단안주 등 메뉴들이 매우 다양해서 직장인들 회식장소로도 적당할 듯 싶다. 조개의 생명인 싱싱함과 푸짐한 양으로 질과 양 모두를 충족시키는 대왕대포에서, 요즘같이 우중충하고 번덕스러운 날씨에 좋은 사람들과 유쾌한 술자리로 기분 UP 시켜보는 건 어떨까.

***주소 : 인천 부평구 삼산동 388 - 15 / *입력처 : 032-513-0340**





독서삼매경. 울망출망한 아이들이 벽에 기대어 있었지요. 건너편에는 주부와 청장년들, 옆 방에는 어린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상에 둘러앉아 있었고요. 거기에 한여름의 나른함이나 늘어짐은 없었지요. 한국만화박물관, 부평과 붙어 있는 부천 원미구. 한국만화박물관은 무한상상이 펼쳐지는 커다란 공간입니다. 만화도서관은 박물관의 일부입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8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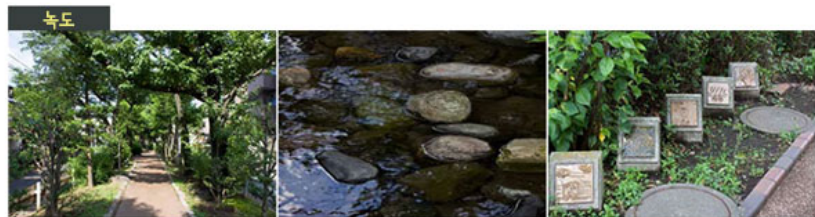
도시속 둘레길을 걷다

도쿄도 세타가야구 (東京都 世田谷區)

도시기반연구부 손동필 책임연구원

도쿄도의 23개 자치구 중 하나인 세타가야구는 일본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동네 중 하나이다. 도쿄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도쿄 도심부로부터 18km, 부도심으로 부터는 10km 정도 떨어져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옛부터 양호한 주거지 중심으로 발달된 지역이다. 특히 지유가오카라는 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청담동, 한남동, 성북동과 같은 동네이다. 저층의 단독 및 연립주택과 예쁜 상점들을 통해 거리를 걸으면서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동네가 아닐까 한다.

세타가야구의 장점은 위에서 말한 주거지역 외에 크게 두 가지가 더 있다. 첫째는 마치즈꾸리(まちづくり) 운동이라고 하는 마을만들기 운동이 시작된 지역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구 내부에 긴 녹도와 실개천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녹도 및 실개천은 마치즈꾸리 운동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세타가야구 내에는 마치즈꾸리 협의회라는 주민모임이 있는데, 이 곳에서 세타가야구에 녹도 설치를 제안하였다. 녹도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지만(실개천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아이들이 놀게 되어 시끄럽다, 쓰레기가 발생한다 등), 마치즈꾸리 협의회가 나서서 녹도와 실개천을 가꾸고자 주민들을 설득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하였다. 특히 워크숍을 개최하고, 직접 걷고, 지도에 표시를 하는 과정을 1년 동안 하면서 사람들로 부터 실개천이 있어서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이러한 의견을 취합해서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실개천과 녹도이다. 녹도를 직접 걸어보니 좋다는 의견이 많았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이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주변에 상업가도가 있음에도 녹도 이용자가 더 많을 만큼 녹도가 활성화되었다.



물론 녹도조성에서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다.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은 하천변에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주민들로, 주로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민들이었다. 그렇지만 반대 의견들은 자신들의 주거와 관련된 반대 의견이었고, 녹도조성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다. 이러한 사항들은 마치즈꾸리 협의회에서 주민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알아낸 사실들로, 주민 개개인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과정에서 해결된 문제였다. 일방적인 개발로 일관하는 한국의 지자체와는 달리, 작은 문제들만 있어도 주민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세타가야구의 녹도이며,

이는 오늘날 한국의 주거환경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용자가 더 많을 만큼 녹도가 활성화되었다. 도쿄도의 23개 자치구 중 하나인 세타가야구는 일본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동네 중 하나이다. 도쿄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도쿄 도심부로부터 18km, 부도심으로 부터는 10km 정도 떨어져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옛부터 양호한 주거지 중심으로 발달된 지역이다. 특히 지유가오카라는 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청담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8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계양산림휴양공원 조성 방향에 관한 연구

도시기반연구부 권천오 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골프장 조성으로 인천시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어 왔던 계양산 북사면에 대하여 산림휴양공원 조성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 계양산에서 관찰되는 생물들



다남동 청룡정 하부에서 바라본 계양산

계양산 북사면의 숲과 초지에는 수리류에 속하는 말뚝가리를 포함해 청딱다구리, 오색딱다구리 등 다양한 야생조류가 관찰할 수 있었으며, 목상동과 다남동의 깨끗한 계곡에는 보호종인 도롱뇽의 성체와 알덩이들과 이른 봄에 알을 낳은 산개구리 성체와 알덩이, 봄 가뭄에 작아진 계곡 웅덩이에서 몸을 피하기 어려워 개구쟁이 아이들에 의해 무참히 잡혀가는 개재들을 관찰할 수 있었음.

아간에 계양산 북사면에서 주로 관찰되는 반딧불이는 늦반딧불이로서 주로 8월 말에서 9월초, 약 보름간에 관찰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반딧불이 축제를 진행해 오고 있음.

식물상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삼지구엽초, 땅귀개, 이삭귀개, 통발 등의 보호종과 함께 물봉선, 둥굴레, 남산제비꽃 등의 다양한 야생화들이 조사되었음.

■ 시민 설문 및 면담 결과

계양산 북사면 전체에 대한 개발의 정도나 개발에 대한 관점에 대한 설문 결과 시설위주의 놀이공원보다는 보전적 관점이 높은 자연 체험 공원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선호하는 이용행태는 자연체험, 식물경관체험, 도시농부체험, 여가활동, 이벤트활동, 체육활동 순으로 나타나 자연친화적인 체험활동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면담결과 목상동은 보전지역 내지 준 보전지역 개념에서 접근하여 일부지역은 보전지역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태체험교육, 산림욕 등 자연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하였으며 다남동은 전지역 개념으로 일부지역은 곤충체험, 캠핑 등의 활동을 희망하였음. 다남동의 마을 지역은 도시농업체험공간 및 전통마을로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여 도시민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하였음.

마을을 포함해 공원부지 전체를 아우르는 친환경적인 동선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친환경으로 설정하기를 희망하였으며 반딧불이나 도롱뇽 등을 활용한 상징물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음.

■ 기본 구상

계양산림휴양공원의 목표를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고 소통하는 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성방향으로는 자연보전을 넘어 적극적인 복원 사업 전개, 농촌지역과 역할 분담을 통해 개방성 있는 공원 설계 진행, 시민의 자연생태·역사문화체험 욕구 충족, 시민의 자연휴양욕구 수용,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조성 및 관리 운영모델 개발의 5 가지로 설정하였음.

공간 구상을 보면 검암 군부대 계곡은 보전지역으로 설정하고 목상동지에는 안내센터 및 코끼리열차 주차장, 명상센터, 캠핑장, 몽골텐트촌, 습지 및 실개천, 반딧불이 서식지조성, 곤충원 및 야생초지, 개구리 웅덩이 추가 조성, 피크닉 및 자연체험장, 연구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음.

다남동에는 어린이 자연놀이터, 어린이 전용 캠핑장, 향토동물원, 공연장 및 지원시설, 허브식물원, 역사문화체험마을, 나비원,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 수생식물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하부 마을 지역에는 친환경 농업, 체험마을, 반딧불이마을, 축산체험농장, 마을기업 체험,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농업기술체험장 등을 제안하였음.

주 출입구는 다남동에 2개소, 방축동 1개소, 목상동 1개소의 총 4개소이며 셔틀버스를 이용해 접근하도록 하였음.



골프장 조성으로 인천시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어 왔던 계양산 복사면에 대하여 산림휴양공원 조성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8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 둘레길의 산실 S자 녹지축의 현황

도시기반연구부 손동필 책임연구원

S자 녹지축내 비오름 현황

〈표 1〉 S자 녹지축 내 비오름 현황

구분	면적(㎡)	비율(%)
합계	52,230,564	100.0
1	17,861,366	34.2
2	12,859,014	24.6
3	21,327,482	40.8
4	176,702	0.4

인천광역시 S자 녹지축의 비오름 평가 결과, 전체 면적 52,230,564㎡ 중 등급 1로 절대적인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17,861,366㎡(34.2%)로 대부분이 자연림이었으며, 등급 3과 4로 비오름 향상이 요구되는 지역은 21,504,184㎡로 41.1%였음

S자 녹지축내 도시공원 현황

〈표 2〉 S자 녹지축 내 도시공원 현황

구분	개소	면적(㎡)	비고
도시공원 합계	29	9,283,505	
생활권 공원	27	8,909,356	
근린공원	26	8,903,523	
어린이공원	1	5,833	문학공원내
주제공원	2	374,149	
체육공원	2	374,149	문학공원내

S자 녹지축상에는 계양산, 원적산, 호봉산, 거마산, 문학산, 청량산 등 주요 산림자원들이 집중 분포하며 이들 대부분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문학공원 내 일부 어린이공원과 체육공원이 있으나 대부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S자 녹지축내 단절현황

〈표 3〉 인천광역시 S자 녹지축 단절 현황

번호	단절유형	단절현황
1	시가화지역	• 걸단로, 서곶길
2	경작지	• 경작지
3	도로	•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4	도로	• 서곶길
5	고속도로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6	도로	• 경명로
7	시가화지역	• 아나지길, 경인고속도로, 서달산길
8	도로	• 원적산길
9	경작지	• 경작지
10	시가화지역	• 경명로
11	도로	• 주안산길
12	고속도로	• 서울외곽순환도로
13	고속도로	• 서울외곽순환도로
14	도로	• 백범로
15	고속도로	• 제2경인고속도로



16	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17	경작지	• 경작지
18	시가화지역	• 비류길
19	도로	• 영고개길
20	도로	• 경원로
21	도로	• 경원로



인천광역시를 관통하는 한남정맥과 문학산, 청량산으로 이어지는 인천광역시의 S자 녹지축의 단절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21개의 단절이 파악됨. 이중 도로 및 시가화지역에 의해 단절된 지역이 5지점,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에 의해 단절된 지역이 13지점, 경작지에 의해 단절된 지역이 3지점으로 이에 대한 연결이 시급함

자료: 202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인천광역시 S자 녹지축의 비오톱 평가 결과, 전체 면적 52,230,564㎡ 중 등급 1로 절대적인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17,861,366㎡(34.2%)로 대부분이 자연림이었으며, 등급 3과 4로 비오톱 향상이 요구되는 지역은 21,504,184㎡로 41.1%였다.